

국회 입성 안철수, 신당 문 열고 야권 새판짜까

4·24 재보선 '거물들의 귀환' ... 정계개편 바람부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요동칠 듯 與 김무성 귀환 ... 권력지형 큰 변화 예고

4·24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노원 병), 김무성(부산 영도), 이완구(충남 부여·청주)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감으로 미뤄볼 때 여야 내부의 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 주자였던 안 후보가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야권의 정치적 유동성 확대는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새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통합당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권 경쟁을 벌이는 강기정, 이용섭 후보 등 범주류와 김한길 후보로 대변되는 비주류는 안 후보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 당선자 측에서는 ▲신당 창당 ▲민주당 입당 ▲무소속 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거머쥔 채 민주당의 5·4 전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누가 당권을 쥐더라도 새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민주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경우 '안철수 입당론'과 '안철수 신당론'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야권의 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철수 신당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10여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10월 재·보선 결과가 야권의 새판짜기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한 선택지를 거머쥔 채 민주당의 5·4 전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누가 당권을 쥐더라도 새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민주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경우 '안철수 입당론'과 '안철수 신당론'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야권의 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철수 신당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10여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10월 재·보선 결과가 야권의 새판짜기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호남 민심의 변화도 주목 대상이다.

그동안 안 당선자에 꾸준한 지지를 보여왔던 호남 민심의 기류가 계속된다면 안철수 신당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도 요동칠 전망이다"이라며 "민주당이 강력한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역 민심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후보의 행보도 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당선시 5선, 이 후보는 3선이 되지만 이들이 단지 국회의원직을 위해 재·보선에 나섰다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지난 대선 실무를 지휘했던 김 후보는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 정국'에서 충남지사직에서 자진사퇴한 이 후보는 충청권 맹주를 자처하며 '포스트 JP(김종필)'를 꿈꾸고 있다.

물론 이들은 당분간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행보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상징성과 당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움직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여권 내부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무성 당선자의 귀환은 당내 권력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차기 전대에서 김 당선자의 당 대표 출마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4·24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왼쪽)과 이완구 후보가 24일 밤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광뉴스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 지형도 박근혜 정부 출범초인 현 시점보다는 '여대야소' 붐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10월 재·보선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내부 지형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대들, 왜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26) 돈키호테

동시대 작가였던 세익스피어와 셰르반데스는 1616년 4월23일 같은 날 세상을 떠난다. 이 날을 기념한 것이 1995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의 날'. 우연인지 세익스피어의 '햄릿'과 셰르반데스의 '돈키호테'는 세계문학사에 서로 늘 같이 불어 다닌다.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가 사람을 사색가 '햄릿형'과 행동가 '돈키호테형'으로 구분한 이래 두 인물은 지금까지 유형화된 한 짝이다.

서양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이자 가장 많이 공연된 햄릿. 돈키호테 역시 최근엔 '맨 오브 라만차'등 뮤지컬로 제작 공연되어 웃음과 감동을 준다. 유명한 고전답게 햄릿의 주요한 장면은 많은 화가들의 작품 모티브가 되었고, 돈키호테 또한 들라크루아, 코로, 오노레 도미에 등 주로 프랑스 화가들이 회화의 주제로 삼았다.

프랑스의 정치적 격동기를 풍미한 풍자화가 오노레 도미에(1808~1879)는 '돈키호테'를 소재로 유화 29점과 드로잉 49점을 그렸다. 작품 '돈키호테'는 백마 로시안테 위에서 허리를 꼴뚜기 세운 강마른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를 그린 것으로 착박한 현실에



오노레 도미에 작 '돈키호테'

맞서는 이의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겐 샀던 전사로 이름난 도미에는 주로 풍자화를 그렸지만 그가 낳은 '돈키호테'는 본격회화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다.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고"자 했던 기사 돈키호테는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한때, 단순화된 이분법 앞에서 '나는 고뇌하고 주저하는 햄릿형'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내안에 늘 망설이는 햄릿도, 과감히 결행하는 돈키호테도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지만.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정치권 관심 이제 10·30 재보선으로 11곳 중 9곳이 與 ... 과반 무너질수도

4·24 재보선이 끝나자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10월 실시되는 재보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여당의 의석이 늘긴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과반이고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 과반마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3곳 중 새누리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이 152석에서 154석으로, 무소속은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났다. 민주당(127석)과 진보정의당(6석), 통합진보당(6석)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1심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최종심을 기다리는 지역구가 현재 15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곳,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각 2곳, 무소속 1곳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곳은 ▲경기 평택을(새누리 이재영) ▲경기 성남중원(통합진보 김미희) ▲경기 수원을(민주당 신장용) ▲충북 보은·옥천·영동(새누리 박덕흠) ▲충남 당진(새누리 김동원) ▲충남 서산·태안(새누리 성완중) ▲경북 구미갑(새누리 심학봉) ▲경남 양산(새누리 윤영석) ▲경북 포항남·울릉(무소속 김형태) ▲나주·화순(민주당 배기운) 등 10곳이다. 또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서울 서대문)과 같은 당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 서구·강화읍은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경남의

경·함안·합천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각각 2심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전망되는 경기 성남중원과 재판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대문을 등을 제외하고 11곳 정도가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들 11곳 중 9곳은 새누리당 지역이다.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후 예상되는 154석을 기준으로 10월 재·보선에서 9석 중 4석을 잃는다면 과반이 무너지게 된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4월보다는 10월 재·보선이 문제"라며 "재·보선 지역이 많은 10월 선거에서 잘못하면 여소야대가 돼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지지 광주·전남 단체들 환영 성명 내고 새정치 기대감

4·24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서울 노원 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자 지난해 대선에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이 환영 성명과 함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시민포럼은 24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전남도민과 더불어 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새 정치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기성 정치인들은 '새정치'의 실체가 무엇인냐"며 안 후보를 다그쳐왔지만, 이번 선거는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국민 스스로 내린 처방이나 다를 없다"며 "이제 새 정치의 도도한 물

결이 노원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정치,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새 정치를 사·도민과 더불어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안 후보 지지 단체였던 광주·전남 진심포럼의 공동대표인 손재홍 광주시의원도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의 당선으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새 정치를 함께할 세력들이 급속히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뭘 믿고 만나니지 인지 모르겠다

청년의 꿈, 따스 그리고 뚝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명품 **CEO아카데미**

차별화된 **맞춤형 연수**

찾아가는 **기업현장연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활성화 연수**

호남연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 상세내용참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홈페이지 (http://giti.sbc.or.kr)
▶ 상담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062)250-3035~7